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8

성모기사

03



3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3월을 시작하며 김용기	02
보나벤투리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입문 한규희	06
프란치스칸 영성 - 사랑 최상유	15
교회 일치 관점에서 마리아 중재의 새로운 이해 권정대	27
약동의 계절 봄 박영철	33
말씀묵상 최창원	34
소망 김종국	36
우리는 프란치스칸 가족 신재희	38
요셉의 집을 다녀와서... 류승우	47
주님 수난 성 금요일 구원보	51
함께하는 이모저모	55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루카 23:3)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3월을 시작하며

김용기 대건안드레아

보름에 한 번 정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주로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시지만, 가끔 아버지께서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두어 번의 대화가 오갑니다. “몸은 괜찮고…?” “네”, “담배 많이 피우던데, 좀 줄이면 좋을 텐데…”, “네 그래야죠…” 만약 통화하는 시간이 식사 시간 전후라면, 여기에 “밥은 먹었고…?”란 말씀이 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간의 침묵이 흐르고, “엄마 바꿔줄게” 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 이상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대개 아버지와의 대화는 1분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다른 누군가와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한다면 많이 어색하거나 불편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와 나누는 이런 대화는 그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저는,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의 아버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십자가인지 어렵פות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 가운데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 자녀를 갖지 않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아이를 갖지 않냐고…. 그 친구의 대답은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 아이를 갖는 것이 두려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수도자입니다. 그리고 사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부(神父)라고도 불립니다. “神父”의 의미가 “영적인 아버지”라는 건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제 생활을 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찌면 그 친구의 말처럼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제로서 지금껏 제가 맡았던 소임들 - 피정의 집, 수련자 양성, 본당사제 - 을 통해서, 이런 두려움은 늘 있었고, 조금씩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쉽사리 제 삶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도 이렇게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한 가정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가정(家長)들이 갖는 부담이나 어려움은 그냥 짐작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몫인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두려운 것은 가족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아버지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쉽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3월은 성 가정의 수호자이시고, 한국 천주교회의 공동 수호자이신 요셉 성인의 달입니다. 성 요셉에 관해 묵상해보면,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자매님에게 우연히 “부군은 세례명이 뭐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엉뚱하게도 “복음 안에서 가장 온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굴까 생각하는데, “요셉”이라 덧붙이셨습니다.

“온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더구나 복음에서는 별로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되어서만 몇 장면들 안에서 비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도 “존재감이 없는 분”처럼 비칩니다. 하지만, 요셉 성인의 삶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매우 불운한 분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그분은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요, 가장이고, 남편이며 아버지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만족이나 기쁨보다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이 가정을 지키는 역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당신 아드님의 인간적인 양육… 이 사명에 요셉은 묵묵히, 그리고 충실히 순명합니다.

요셉 성인의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은, 자기가 약혼했던 마리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모님과 함께 아들 예수의 구원 사명에 대해 자신 역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결국 신망에 삼덕 모두가 요셉 성인 안에 있었고, 또한 그것이 그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필요할 때에 그는 결단을 내렸고,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바로 이런 면들이 오늘날 요셉 성인을 가장 많은 직함을 가진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공동 수호자’, ‘성가정의 수호자’, ‘노동자의 주보’, ‘임종자의 주보’, ‘수도자의 모범’(…)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우리들의 전 생애에서 성 요셉은 수호자이시고,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온갖 말들이 넘쳐나고, 가식과 과장이 일상화 되어버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요셉 성인의 모범일 것입니다.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요셉 성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분의 성덕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요셉 성인께 간구해 주시기를 청하며, 3월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상승의 전기문학 보나벤투라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입문

한규희 보나벤투라

보나벤투라는 총 61권의 신학작품과 4편의 서한을 기술하였다. 그 가운데 대전기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과 세 가지 길과 함께 프란치스코 작품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보나벤투라는 대전기뿐만 아니라 소전기, 기적에 관한 소고를 함께 집필하였다. 보나벤투라는 언제나 계시와 철학이 하나로 통합될 때 완전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고 그 모범을 프란치스코에게서 찾았다.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 안에서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 신비와 체험/삶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간파하였다.

비록 역사가 우리에게 보나벤투라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진 못하지만, 그가 그의 동시대인들에게서 큰 존경과 더불어 애정을 받았음이 드러난다. 수도회의 총장으로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폄훼하는 역사적인 문헌들은 직접적인 관찰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내분에서 생겨난 편견의 산물들이다. 매우 자주 그의 작품들 안에서 밝게 빛나는 시성(詩性), 예술성, 평온함, 아름다움과 신앙심은 분명하게 그가 프란치스코처럼, 자

신의 하느님, 형제들과 자매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조화와 평화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 인물임을 증명하고 있다.

보나벤투라가 집필한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가 어떤 작품인지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 제목

Legenda maior sancti Francisci

■ 집필 연도

1260-1263년 사이

■ 구성

하나의 머리말 + 15장

■ 주요주제

01-04장: 성인의 회개부터 수도회 설립까지

05-12장: 성인의 주요 덕들

13-15장: 오상부터 시성까지

■ 원천사료

토마스 첼라노의 전기들, 특별히 비망록(2생애)

세 동료 전기, 스피라의 율리아노가 쓴 생애

에지디오와 일루미나토 형제의 증언

■ 시대상황

탁발수도회에 반대하는 논쟁; 수도회 내부의 상황;

성인에 관한 문학 작품들의 증가와 다양화

■ 체험유형

성인에 대한 공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 기술방법

단어의 강세와 음악적 요소가 가미된 문장의 운율에 따라 소리 내어 읽는 편지처럼 기술

■ 문학장르

성인전; 전기

■ 사용언어

시적 언어, 신학-영성적 언어

■ 비 평 본

S. Bonaventurae Opera Omnia, vol. 8, Quaracchi, 1882-1902.

■ 이탈리아어본

Opere di San Bonaventura, Opuscoli francescani/1, vol. XIV/1, 1993.

Fonti Francescane, 2004.

■ 한국어본

보나벤투라에 의한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분도출판사, 1979.

■ 영향/중요성

1266년 파리 총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지닌 유일한 공식 전기로 선언됨.

저자의 의도와 대전기의 목적

비록 머리말이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적지만 저자의 의도와 대전기가 지닌 목적을 이해하는데 머리말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대전기 머리말, 3절에서 보나벤투라가 직접 밝힌 집필 의도는 다음과 같다: 1) 형제들의 열렬한 바람; 2) 총회의 요청; 3) 성인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이어서 대전기를 집필한 목적에 대해 언급한다:
“내가 지금 그의 생애를 쓰는 주요한 이유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잊혀 있는 그의 덕과 그가 말하고 행한 모든 것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한데 모으고자 함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그와 함께 살았던 수사들이 죽을 무렵이면 다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와 목적은 공식적인, 또 표면적인 것이다. 실제 보나벤투라가 대전기를 집필한 이유와 목적에는 보다 더 복잡한 측면이 존재하며, 고려해야 할 시대적 배경들이 존재한다. 곧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1255-1267

성 프란치스코에 관한 설교

■ 1257.2.2

파르마의 요한이 총장을 사임함,

작은형제회 총장으로 선출: 요아킴주의와 관련

■ 1257.4

형제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회람 편지 작성

(수도회 안에 존재하는 열 가지 부덕들 지적)

■ 1259.10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 집필

■ 1259-1260

세 가지 길 집필

■ 1260

나르본 총회에서 회헌 인준과 더불어 전기 집필 요청

■ 1260-1263

대전기, 소전기, 기적에 관한 소고 집필

■ 1263

피사 총회의 인준, 34권의 사본 각 관구에 배포

■ 1266

독점적 지위를 지닌 유일한 공식 전기로 선언,

다른 전기들 파기 명령. 이 파기 명령은 차기 총장에

의해 철회되었으나 독점적 지위는 1768년까지 유지됨.

보나벤투라의 집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역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수도회 외부와의 충돌 - 요아킴주의에 대한 비난
- 2) 수도회 내부의 상황 - 수도회 안에 생겨난 두 가지 흐름: 영성파와 공동체파
- 3) 성인의 삶과 영성을 다룬 문학 작품들의 증가와 다양화

여기서 보나벤투라의 참된 집필 의도와 목적이 드러난다:

- 1) 수도회를 요아킴주의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 2) 수도회의 단일성을 지켜내는 것
- 3) 프란치스코 성인의 참된 모습을 전하는 것

곧, 호교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교회에 순명하고 그 가르침에 충실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수도회를 보호하였다. 더불어 프란치스코 성인을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어 낸 본보기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또한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대전기는 나르본 총회의 요청으로 본격적으로 집필되기 시작하였지만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것이다. 사실 성인에 대한 설교를 통해 이미 성인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 설교 안에서 이미 성인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한 원천사료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토마스 켈라노의 비망록(2생애)이다. 성인과 관련된 장소를 직접 방문, 초기 형제들의 증언을 들어봄으로써 가능한 한 최대한 성인의 삶과 영성을 정확히 기술하고자 노력했다.

보나벤투라가 지적한 형제들의 열 가지 부덕

- 1) 돈을 열망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받고, 그보다 더 무모하게 돈을 다루는 상거래 행위;
- 2) 살아있는 영혼들의 피를 잔인하게 빨아먹으며 활동과 관상의 중간 형태로 보이는 기괴한 삶의 형태를 정당화하는 계으름;
- 3) 타인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안락한 생활;
- 4) 여행자들이 형제들을 노상강도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고, 그래서 형제들을 피하게 하는 집요한 구걸;
- 5) 많은 형제를 경악시키고 은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호화롭고 화려한 건물의 건축;
- 6) 수많은 구설수와 의심과 추문을 자아내는, 수도 규칙이 금하는 여성과의 육체관계;
- 7) 원숙함과 능력이 떨어지는 형제들의 형제회 내부 직무 수행;

- 8) 성직자들, 특히 본당 사제들을 대단히 괴롭히는 신자들의 장례와 유언에의 관여;
- 9) 불필요하고 값비싼 주거지 이동;
- 10)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삶에 만족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더 악화하기만 할 기이한 수준의 지출 증가.

요아킴주의

피오레의 요아킴(Joachim of Fiore, 1135-1202)은 1202년 죽음에 앞서, 제자들에게 일러 자신의 작품을 교황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하되 그 결정에 따르라고 하였다. 이후 (프란치스코 성인도 참석한)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요아킴의 작품에서 삼위일체 사상은 단죄했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그의 신학 전체를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요아킴의 작품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고 프란치스코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

요아킴은 이 세상의 역사를 구약 성경 시기, 신약 성경 시기, 그리고 요아킴 당대의 시기로 크게 삼등분하여 해석했다. 또한 계시록 7장에 묘사된 여섯 인장을 지닌 천사가 나타나 이 세 번째 시기의 마지막을 알릴 것이라 예언하였다.

많은 프란치스칸은 이 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상처인 오상이라는 인장을 지닌 성 프란치스코라고 확신하였다. 심지어 1235년부터 1257년까지 파리 대학에서 수학하고 가르쳤던 성 보나벤투라 역시 이 관점에서 프란치스코를 이해하였다. 보나벤투라가 작성한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 서장에도 그러한 보나벤투라의 관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프란치스칸 영성 - 사랑

최상유 막시모

영혼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가난과 사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가까이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다. 굳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나와 마음이 잘 맞지 않는 사람보다야 나와 의견도 맞고 사고도 비슷한 사람과 만나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을 진정 사랑했다. 성인이 자유로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아가기 위해 청빈을 강조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였다. 물질적인 청빈만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했다. 그것이 사랑으로 형제애로 드러나게 되고 나아가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우주적 사랑으로 심화되게 된다.

성인은 아시시 주교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놀라운 마음의 자유를 체험하였다. 성인은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기를 원했다. 이는 지극한 가난의 정신을 입음으로써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기를 원했고, 이를 통

해 하느님께 깨끗하고 자유로이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성인은 사랑의 정신이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는 자유의 길을 택하였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글 안에 드러난 사랑

권고 9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박해하고 중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따라서 자기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해(害)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 태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권고 9)

프란치스코 성인은 영적인 권고에서 이와같이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혹은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박해하며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고한다. 이는 하느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권고 24-25 참된 사랑

“형제가 건강하여 보답해 줄 수 있을 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만큼, 형제가 앓고 있어 보답을 받을 수 없을 때도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종은 복됩니다.”(권고 24)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 행위는 보답을 바라고 하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의 행위여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고, 보상을 바라거나 보답을 원하는 행위는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다.

모든 형제가 서로 윗자리를 차지하기보다 봉사하고 희생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두 구별 없이 작은 형제들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셨다. 작은 형제들이 더욱 작아지기를 원하셨고,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형제회 초기 선교를 떠나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양식을 가진 형제들은 얼굴 보기조차 힘들었기에 서로 어디에서 만나든지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 따뜻하게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다.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자기와 함께 있을 때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 형제 앞에서 사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을 그 형제 뒤에서도 그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종은 복됩니다.”(루고 25)

회칙 안에 드러난 사랑

수도회가 창설될 때 회칙이 아니라 생활이 먼저 있었고, 이러한 생활을 바탕으로 회칙이 만들어졌다. 복음을 실행하는 형제들의 삶은 복음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작은 형제들의 삶인 것이다.

인준받은 회칙 1장 첫 구절은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 살기를 희망하는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다.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순종, 청빈, 정결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형제들의 삶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강조하고 말했던 형제적 사랑에 관한 내용은 회칙의 여러 곳에서 발견 된다.

“어떤 형제도 다른 형제에게 악한 짓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지 말 것입니다.”(인준받지 않은 회칙 5,13)

“모든 형제는 누군가를 중상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도록

록 조심하고 (...) 형제들끼리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하지 말 것이며 (...)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지며,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니 성을 내지 말 것입니다. (...)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라고 사도가 말하듯이 서로 간에 지니고 있는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중상하지 말 것입니다. 중상꾼과 험담꾼은 하느님의 미움을 삽니다’라고 적혀 있으니, 불평하거나 남을 헐뜯지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면서 온순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미미한 죄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쓰라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더 큰 죄를 돌이켜 볼 것입니다.”(인준받지 않은 회칙 11,1-12)

사랑의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

기 때문입니다”(요한 4,19)라는 성경의 구절처럼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했던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을 그리스도의 친구로 여기지 않았다. 하느님 사랑에서 출발한 성인의 사랑의 마음은 회칙에서 드러난다.

“우리를 박해하고 책망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힘쓰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중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인준받은 회칙 10,10)

“다른 이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느님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할 것”(권고 3,8)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사랑은 하느님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느님 때문에 형제들은 어느 누구도 차별이나 구별 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형제들은 “누가 어떻게 죄를 짓든, 하느님의 종이 이 때문에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흥분하거나 분개한다면, 스스로 과오를 쌓는 것입니다.”(권고 11,2)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이 함께하심을 발견한 성인은 어떠한 형제와도 하느님은 갈림 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판단할

수 없기에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랑의 방식

수도자로서, 프란치스칸으로서 복음은 온전히 따라야 할 것이다.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생활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혹은 자신에게 맞게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안된다. 착하고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는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주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마태 5,42)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성격적으로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자기가 지껄인 쓸데없는 말을 심판 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마태 12,36)라는 말씀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고 하신 말씀을 기꺼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검소하고 욕심 없는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면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마태 19,21)는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내성적이고 침묵을 잘 지키는 사람 같으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루카 18,1)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거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하느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코린 13,4-7)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프란치스코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구약에서의 사랑의 요구는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마태 5,43)였다. 자기 마음에 들고 자신과 이야기가 통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구약의 내용과 달랐고 새로운 가르침이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계명이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라 살기를 갈망한 사부 성 프란치스코는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다. 성인의 이러한 마음은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아닌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였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1베드 3,9)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로마 12,21)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적 사랑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데는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신심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물이다.

모든 선을 내려 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한다. “그리고 형제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한 가족임을 서로 간에 보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

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서로 간에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육신의 자녀를 기르고 사랑한다면 형제는 자기 영신의 형제들을 한층 더 정성되이 사랑하고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제 중에 누가 병이 나면 다른 형제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아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에게 봉사해야 합니다”(인준받은 회칙 6,7-9)라고 말하고 있다.

세상에서 나그네와 떠돌이처럼 생활하기를 원했던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따라 형제들이 복음을 실행하면서 세상을 두루 다녔기에 한곳에 모이기 힘들었지만 이러한 가족의 정신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다.

피조물 사랑

생태계의 주보성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은 특별하다. 성인의 삶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따르는 삶이었다. 사랑이신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녔던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의 사랑을 통해 창조주 하느님을 발견한다. 그렇기에 성인에게 있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사랑이신 하느님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어 주었다. 하느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의 마음이 창조된 모든 피조물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안의 형제, 자매들이여”(1첼라노 81)라는 말에서 프란치스코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성인은 미미한 피조물조차도 똑같은 기원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다. 피조물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근거도 한 분이신 하느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에 있다.

하느님과 사랑에 빠진 성인의 눈에는 세상 모든 창조된 피조물이 하느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였다. 특별히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그를 창조주의 모상을 지닌 사람들과 모든 자연에게 더 친절한 형제가 되게 하였다. 태양을 형님, 달을 누님, 별을 자매 등으로 부름으로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론적 형제 관계는 하느님과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의 형제애로 뭉쳐지는 것이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다리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모든 창조된 만물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그는 창작가이신 그분을 찬미하였다. 세상을 하느님과의 관계에

서 선택하신 하느님의 매우 밝은 표상으로 보았다. 피조물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는 그것을 창조주와 관련시켰다. 그는 주님의 손에서 빚어진 모든 작품 안에서 즐거워하였고, 유쾌한 사물들의 배후의 뜻을 살핌으로써 그 사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성과 원인을 보았다.

그는 아름다운 사물들 안에서 아름다움 자체를 보았다. 모든 사물들이 그에게는 선이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은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외쳤다. 그분의 발자국이 서려 있는 사물들을 통하여 그는 어디서나 사랑이신 그분을 따라갔다. 그는 홀로 모든 사물에서 사다리를 만들어 그 사다리를 밟고 옥좌로 올라갔다.”(2첼라노 165)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있어서 피조물은 하느님이 거니신 발자취이고, 하느님의 숨결이 곳곳에 묻어 있는 창조된 모든 세계는 좋기만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피조물을 사다리 삼아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했다.

교회 일치 관점에서 마리아 중재의 새로운 이해

권정대 베드로

교회 일치 관점에서 마리아 중재성의 새로운 이해를 하기 위함은 마리아에 대한 모든 진리가 그리스도와 교회 신비의 단면들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인간 안에서, 인간과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구원적, 현존적 신비의 표현이자 이 현존이 가지는 양식에 대한 표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일치 관점에서 마리아 중재성은 성경에 의해 영감을 받은 마리아의 구세사적 역할과 의미를 밝히는 가운데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마리아의 부속적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성을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최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뒤바꾸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교회 전통의 문화적인 표현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초교파적 차원은 신자들을 다양한 문화적 전통들에 대한 존경 안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살도록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안의 일치다. 다양한 표현과 함께 본질적인 요소 안에 함께하는 것이다.

마리아의 모성

구세사의 정점이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와 구원사업이다. 구세사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의 육화와 구원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사건에 의해 그 수준과 가치가 측정된다. 마리아 중재성 역시 그리스도와 맺는 연관성에서 올바르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리스도와 맺는 구세사적 역할과 의미 안에서 마리아의 ‘중재성’을 보아야 한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 삶의 결정적 전환점인 육화와 십자가 사건에 그지없이 가까이 현존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그런데 십자가 곁에서 마리아의 구세사적 기능은 육화의 경우처럼 분명하지는 않다. 그래서 마리아의 중재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에 드러나는 마리아의 ‘모성(母性)’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육화에 ‘어머니’로서 참여하였다. 이처럼 마리아의 신학적 위상과 특히 구세사적 기능이 그분의 아들 예수의 신성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중재성은 그리스도에 대해 마리아가 가지는 그녀의 모성 관계에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는 구세사적 사실은 마리아의 모성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마리아 모성에 대한 신학적 진술은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

에 대한 증언이 된다.

마리아가 인간의 육신 안에서 하느님께서 궁극적으로 오시는 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화 안에서 세계를 위해 오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수용되는 일이 발생한다. 세계의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수용함으로써 마리아는 전 구세사를 규정하는 지점에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의 모성을 통해 단지 나자렛 예수의 사적 생애뿐만 아니라 세계의 구세사 안에서 유일무이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느님의 구원은 신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모성은 모든 인류를 ‘대표(代表)’하여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세사에 있어 마리아의 모성적 역할은 그녀의 사적생애(私的生涯)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공적역사(公的歷史)’ 전체의 중심 사건에 속한다.

마리아가 은총이 가득하게 된 것은 자기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확산되어 작용하기 위한 것이다. 개신교 신학에서도 마리아가 단순히 개인으로서만이 아닌 구세사에서 공적 기능을 수행한 분으로 대하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구원의 표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마리아는 그의 모성으로 인류를 위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중재(仲裁)’의 유일한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중개(唯一仲介)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칙은 모성적 차원에서 마리아의 특별한 소명을 ‘모성적 중재’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母性的 仲裁, Mediatio Materna)’ 개념은 마리아 모성에서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모성적 소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일치 영역에서 가능할 수 있으리라 예견되는 교리적인 모든 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성을 발전시킨다.

마리아 신앙의 전형

마리아의 중재는 그녀가 여느 인간들과는 달리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신앙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회칙은 하느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앙의 여정(iter ad Deum)’을 강조하며 반복한다.

성경은 마리아의 자유로운 신앙을 강조한다. 마리아는 하느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신의 신앙적 동의로써 하느님 구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협력하셨지만, 더 나아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구원사

업에도 직접 협력하셨다. 마리아는 당신의 일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봉사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리아를 정확히 바라봄으로써 그녀의 인간적인 면, 불완전성, 신앙의 성장, 충실한 신앙의 여정을 통해 불신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경에서 역사의 마리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신약 성경적 복음 선포 본연의 대상인 하느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마리아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경은 마리아가 당신 신앙의 여정 중 불확실성과 의심을 체험한 매우 인간적인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의 체험을 통해 신앙으로 나아갔다.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이 종교적,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어머니로서 지켜보았고, 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극심한 고통과 죽음에 동참했다. 마리아는 조용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았고,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회칙은 구원 계획 안에서 마리아의 ‘순명(Fiat)’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 이렇게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실보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적 신앙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지극히 복

된 당신의 모성적 중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중재의 유일한 원천은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 중개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주도적 은총 안에서 이 엄청난 구세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계신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이룩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처신하는 순종적 신앙을 순수하게 구현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단순한 수동적 자세가 아니고 자유 의지와 함께 하느님 뜻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인적인 처신이어서 하느님의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母性的 仲裁, Mediatio Materna)’ 개념은 마리아의 중재가 그녀의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일치와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마리아의 신앙은 모든 그리스도인 일치에의 척도이다.

약동의 계절 봄

박영철 요셉

멀리 산을 보노라면
그 동안 흰 옷 두른 가지가
한폭 두 폭 외투를 벗고
마음마저 굳어 있던 몸을 일으켜
긴 늦잠에서 깨어난 듯
큰 기지개를 펴고
새 봄을 맛을 준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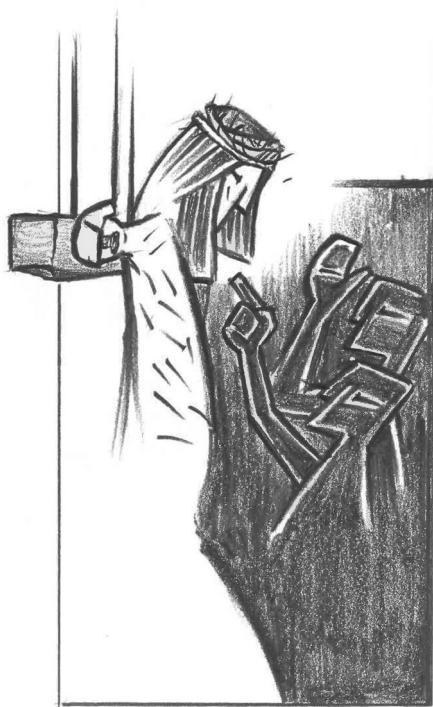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듯
모든 것이 약동하는 봄을 맞아
식물들은 새 움을 틔우려 고통의 출산을 시작하고
사람들은 한해를 시작하며
새 삶의 향로를 설계한다.

말씀묵상

최창원 니콜라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2)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마르 15,29-30)

간장종지 화가

소망

김종국 요셉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며 노는 호수의 백조가 되고 싶어요

당신이 활짝 웃으시면 각시탈 쓰고 춤을 추는 춤꾼이 되고 싶어요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 나서실 때 몸을 지탱하는 지팡이가 되고 싶어요

배고프고 목마른 이들에게 당신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르는 심부름꾼이 되고 싶어요

가엾이 여기시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실 때 눈가에 흐르는 눈물이 되고 싶어요

웅크리고 굳어버린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고 베푸시는 조찬(朝餐)장

몸과 마음을 파뚫이 데우며 영원한 생명이 되고 흐르는 포도주가 되고 싶어요

새 생명의 기운이 싹트는 봄

파란 하늘은 드높이 날아 기쁜 소식을 노래하는 종달새가 되고 싶어요.

부르시고 가르치는 말씀이 파동 되어 흐르는 호수의 물결이 되고 싶어요.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당신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어요.

영롱한 빛으로 얼굴을 보여주시고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 저를 충만

하게 하고 이끄시고 계세요.

"나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온바로 바라보고 내 말을 잘 실행하여라.

사랑한다."

우리는 프란치스칸 가족

신재희 베드로

인도에 도착한 다음날, 알람시계도 필요 없이 끊임없이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에 눈이 떠졌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으로 야자수와 바나나 나무가 보였다. 웃음이 났다. ‘아, 내가 이곳까지 왔구나.’ 콧노래를 부르며 수도복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경당을 찾아가 기도드렸다.

묵상 시간이 끝나고 아침기도와 미사가 드려진다. 인도 관구 본원에서는 그 시간 동시에 두 대의 미사가 드려진다. 수도원 주변에 모여 사는 마을 사람들은 성당에서, 수도원 형제들은 경당에서 미사에 참석한다.

미사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인도 관구장이신 레오 수사님과 수도원 원장이신 마닐라 수사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인도관구에서의 시작은 실습을 나온 3명의 유기 서원 형제들과 함께 2주 동안 본원에서 지내게 되었다.

관구본부라는 특성상 많은 손님이 방문하였는데, 두 분의 이탈리아 신부님들과 인상이 좋으신 리디아 할머니 그

리고 세 명의 순례객들이 있었다. 그 날 저녁은 이탈리아에서 오신 조반니 신부님과 비오 신부님과 함께 내 환영식이 있었는데 어깨를 두르는 천과 향기를 가득 풍기는 꽃목걸이를 선물로 받으며, 본원에 있는 모든 형제의 축하를 받았다. 나는 내 목에 있던 꽃목걸이를 리디아 할머니에게 걸어주었는데 할머니께서 볼에 뽀뽀를 해주셨다. 조금(?) 당황은 하였지만 그 모습에 모든 형제가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었다.

인도 관구본원에 있는 동안 많은 형제를 만날 수 있었다. 그중에는 유럽국가에 사목을 나가 있는 형제들도 있었는데, 사제들이 부족한 유럽 각국에 인도 형제들이 파견되어 사목하는 것이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가톨릭 선교사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왔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아시아의 사제가 유럽에 가게 된 것이다.

전 세계로 흩어져있는 우리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어디를 가나 그 공동체에서 환영을 받는다. 프란치스칸 형제에는 한 지역과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 세상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그 향기를 퍼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본원에서의 2주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하루하루가 단순하면서

도 느긋하게, 하지만 지나보면 빠르게 흘러갔다. 본원에서 주일은 그곳에서의 토속적인 전례 미사를 드릴 수 있었고, 평상시에는 영어로 미사와 성무일도 기도를 했다. 그곳에 파견 나와 있던 형제들(리딘, 리쥔, 지오)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면 오전에는 코코넛 나뭇잎으로 만든 빗자루로 수도원 주변을 쓸고 커피나 짜이(인도 차) 한 잔을 마신다. 오후에는 수도원 주변 농장 일을 하거나 성당 제대를 꾸미는 일을 하였는데 주변에는 1년 내내 번갈아 피는 꽃들이 많아, 그것들을 꺾어다가 꽃꽂이를 한다. 처음 해보는 꽃꽂이에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배우다가 나중에는 내가 꾸민 꽃들로 제대를 장식할 수 있었다. 농장 일은 딸감 모으는 일을 주로 하였지만, 코코넛 줍는 일과 코코넛 까기에도 도전해 보았다.

일과가 모두 끝나면 기다리던(!) 운동시간인데, 나는 축구와 배구와 배드민턴을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하였다. 축구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했는데 맨발로도 어찌나 잘 뛰고 잘 차던지 그때부터 나도 맨발수련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에서 신고 갔던 운동화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 버렸다.

배구는 그곳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의 하나

이다. 그래서 마을 곳곳에 배구장이 흠바닥일지라도 꼭 있을 정도인데, 나는 중학교 체육 시간 이후로 처음 해보는 배구를 형제들에게 배워가면서 곧잘 따라 하였고 편을 짜서 배구경기도 하였다. 그다음으로 배드민턴은 자신 있는 종목이라 잘하는 형제에게도 밀리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한국형제 이겨보겠다는 인도형제들의 도전을 많이 받았다.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끝기도 이후 하루를 마감하고 चुचुहि 떠 있는 남인도 케랄라의 밤하늘을 벗 삼아 잠이 든다. 본원에서의 시간은 아주 빨리 지나갔다. 다음 목적지는 인도관구의 소신학교이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경험들이 항상 나를 깨어있게 한다.

소신학교 이야기

관구본부에서의 2주간의 시간이 흐르고 소신학교로 이동하기 위하여 짐을 챙겼다. 여행 가방의 대부분이 학용품들이었는데, 고맙게도 선교체험을 떠나기 전 함께 공부했던 우리 반 신학생들이 보내준 것이었다. 인도에 가게 되면 공부하고 있는 형제들과 어린 친구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에 여행가방 가득 싸들고 온 것이다. 소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나눠줄 생각에 잔뜩 기대를 하고 남인도 케랄라주에 있는 ‘쇼티’로 향했다.

지금의 인도관구는 많은 부분 신학생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처음으로 내가 이동하게 된 곳은 인도 관구 세 개의 소신학교 중 한곳으로 수도회가 인도에 처음으로 정착하게 된 곳이기도 하다. 몰타관구의 수사님들을 통해 1980년 이곳에 소신학교를 세워 신학생을 양성한 것에서 출발하여 인도관구가 성장하게 되었다.

소신학교가 있는 초티로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을 구경하면서 점점 소신학교와 가까워질수록 주변으로 성 토마스 중고등학교, 성 아우구스티노, 성 도미니코 신학교 등 이곳의 가톨릭 교세를 실감할 수 있었다.

마르코 수사, 사무엘 수사 그리고 올해 서품을 받은 새 사제들까지 총 다섯 명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우리가 가는 그 날이 소신학교의 개교 기념일이기도 하였는데, 아침에 출발하여 행사가 시작되는 저녁시간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한 그곳 소신학교 공동체는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쿵작쿵작 울리는 노랫소리에 소신학생들의 달란트를 잘 드러낸 신나는 공연들을 볼 수 있었고, 이날에 맞춰 멀리 한국에서 형제가 왔으며 덩달아 나도 축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늦은 시간까지 축제가 이어지고 소신학생들이 나에게 우르르 다가와서는 노래를 해보란다. 무슨 노래를 할지 곱

꿈이 생각하다가 끝기도 후에 바치는 성모찬송가를 연달아 불러주니 아주 좋아하였다. 다음에 자기들도 꼭 가르쳐 달라며 약속을 하였다.

남인도의 미사전례

다음날 소신학생들이 내가 자고 있던 방 창문에 모여서 풍선을 터트리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 눈이 떠졌다. 창문 밖으로 장난기 어린 소신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도 축제의 연장선으로 다들 아직까지 들뜬 마음이었다. 소신학생들의 가족들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마련된 강당에 모여 하루를 보내고, 아침미사에 참석했다. 말라얄람어로 드려지는 미사인데 한국에서 드리는 전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사제는 전례 시기마다 다른 색의 제의를 입는 것이 아니라 붉은색의 자수로 꾸며진 망토를 두른다. 소신학생들의 영성담당 소임을 맡은 fr.사이지 수사님께 전례복에 관해서 물어보니 마카베오 상권의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곳 전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시로 말라바르 전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틴 전례

* “요나탄을 고발한 자들은, 그렇게 선포되는 대로 그가 영광을 차지하고 자주색 옷을 입은 것을 보고는 모두 달아났다.”(1마카 10,64)

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오히려 동방교회 전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제대로는 성찬의 전례가 이루어질 때만 이동하며, 제대 앞에 놓인 탁자에서 말씀의 전례가 이루어진다.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 사제는 제대로 다시 돌아가 마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전례 모습처럼 신자들에게 등을 보이고 십자가를 향해 선다.

미사 때마다 향과 성수가 쓰이는데, 향지기 복사는 아주 힘차게 향을 흔든다. 미사의 거의 대부분 시간에 그 향을 흔들고 있었다. 특히 눈여겨본 것이 성호경을 동방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긋는 것이었다. 이것에 대해서도 fr.사이지 수사님께 물어보았지만, 아쉽게도 내 짧은 영어 실력으로는 수사님의 설명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

소신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봉헌으로 꽃과 과일과 음식들을 제대에 바치고, 평화의 인사를 할 때에는 주례사제로부터 시작하여 합장한 손을 복사들에게 맞댄다. 복사들은 신자들에게 다가와 서로 합장한 손을 맞댄다. 마치 부활 성야 미사 때, 부활초로부터 촛불이 뿜어져 번져가듯이 이곳에서의 미사의 모습은 그러한 형태로 그려졌다.

사순시기

소신학교 공동체에 머무는 동안 사순 시기와 부활을 그곳에서 보냈다. 수사님들과 소신학생들이 사순시기에 맞춰 고행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드렸던 그 순간순간을 함께 하면서 처음에는 나와 자라온 문화와 상황이 다름에 따른 종교적 심성의 차이에 어색해하였지만, 이윽고 복음적 상황에 놓여있는 모습이 ‘나’가 아닌 ‘우리들’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조금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전례와 종교적 심성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계시는 현재의 모습을 지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토록 나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에서 흠뻑 받아드리며 열정적으로 사순시기를 보내보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인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무릎에 피가 흐르는 것을 십자고상에 표현한 점이 특이하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의 무릎에도 상처가 있을까? 그 답을 사순시기 마을 사람들과 소신학생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알 수 있었다. 자갈밭을 돌며 매 처마다 무릎을 꿇고 하는데, 심지어는 고행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다니며 십자가의 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십자가의 길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 수도복을 벗고 무릎을 보니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비록 피까지 흘리지는 않았지만, 내 무릎을 바라보며 인도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닮은 한 군데는 찾을 수 있었다.

사순시기를 보내며 이곳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살고 자라온 삶의 자리를 떠나, 먼 타국에서 만난 예수님 또한 그분이었음을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시간이었다.

요셉의 집을 다녀와서...

류승우 라우렌시오

인천 갈산동 요셉의 집에 파견을 나간다고 할 때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하는 걱정도 있었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집 생활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노인시설의 이미지를 깨고 새롭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고민만 하고 있으면 답이 나오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밝게 웃으며 다가갔고 웃으면서 하나, 하나 물어보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고, 어르신들께서 즐거워하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 같은 일은 요셉의 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못하시다가 다시 일어나신 일입니다.

그분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시며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식사와 대소변을 다 챙겨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와상 환자를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라 원장 수사

님께 돌보는 방법을 듣고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며 어르신은 살이 빠지고 식사도 잘 못하시며 기력이 떨어지시는 것을 보며 ‘혹시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부터 배까지 살이 빠지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빠지셔서 바지가 안 맞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통증을 호소해서 진통제를 투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르신께서 몸을 일으켜 화장실을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 조금 비틀비틀하시지만, 위커를 짊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면서 아!!! 기적이구나 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 어르신은 일어나서 움직이시다니! 놀라워서 원장 수사님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먹는 것도 젊은이 못지않게 드시고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다니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린 일은 영화상영회를 연 것입니다. 양로원 시간표를 보면서 영화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의 추억 영화를 상영해야겠다고 계획하면서 언제가 좋을까 고민하다 설날로 정했습니다.

영화 제목은 ‘석양의 무법자’.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영화로 제가 보기에는 유치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르신들의 몰입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셉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여태 본 적 없는 집중력을 보여주시더니 영화가 끝나서는 손뼉 치시며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방문한 아이들 덕분에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신 일도 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세배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양로원 분위기보다는 아이들의 눈에 맞게 꾸미고 어르신들께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동네의 태권도 학원에서 아이들이 와서 춤추며 태권도를 보여 드리고 어르신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각자 핸드크림을 사서 어르신들에게 발라드리는데 어르신들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안마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아이들이 해주면서 어르신들께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글라라 어린이집에서 와서 공연을 해주고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안에서 어르신들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집에서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과 친해져서 헤어질 때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양로원 하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일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 자신도 언젠가는 이런 모습으로 늙어 가겠지 하며 묵상해보고 어르신들과 지내며 웃고 떠들고 생활하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저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수난 성 금요일

구원모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 찬미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끈벙뚱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주님 수난 성 금요일은 세상의 구원과 우리 각자각지를 위해 당신의 몸까지도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례를 통해 생생하게 기억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매우 오랜 전통에 따라 이날 성찬례를 거행하지 않고,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 경배 그리고 영성체 예식만을 거행합니다.

미사 성제는 사제를 통해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기에, 주님 수난 성 금요일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걸쳐 미사가 없는 유일한 날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분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고뇌에 빠진 슬픔의 인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얼굴을 외면하지 않고서는’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이 처참한 모습, 그리고 실패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생각해봅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전능하신 분께서 왜 꼭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시기에, 진실로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기 원하시기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하느님의 은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원죄를 가졌기에 계다가 악의 유혹으로 인해 인간은 죄에 물들었고, 주님께서 바라신 참된 행복과는 전혀 다른,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한번 주신 자유의지를 다시 가져가시는 대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여기 있는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보라, 십자가의 나무를,
여기에 세상의 구원이 달렸도다.”

바로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서 위대하신 그분의 지극한 사랑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없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또한 2독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곧 십자가 경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인사하시면서 기쁘히 말씀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절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인천지구 신년 떡국잔치

1월 6일, 성모기사회 인천지구는 새해를 맞이하여 토요일 신심 미사 후에 떡국잔치를 가졌습니다. 이날, 미사 참석 인원은 150여명을 넘어섰고, 성모기사회 운동에 참석하기로 결심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의 각오가 변치 않도록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한
하느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카 1,48-49)



프랜치스칸 화요 신앙 특강 신청 안내

- 기 간 : 2017년 3월 6일 ~ 6월 12일
-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중식 제공
40분 수업 - 20분 휴식 - 40분 수업
- 장 소 : 한남동 프랜치스코 피정의 집 대강의실
- 강사진 : 강주현, 최문기, 한규희, 김용기 수사
- 강의 신청 접수 및 문의
한남동 수도원 안내실 02-793-2070
(화요일은 휴무,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가능)
- 강의료 입금 계좌 : KEB하나은행 352-910019-52504
천주교곤벤뚜알성프랜치스코수도회
(반드시 입금자를 수강자 본인 이름으로 해 주세요!)
- 강의료
1-4회차 통합 : 20만원
1,2,4회차 : 각각 7만원 (3주 강의)
3회차 : 5만원 (2주 강의)
- 강의는 선착순 50명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회차	일 시	강 의 주 제	강 사	비 고
	3/ 6	개강 미사와 오리엔테이션	관구장 정진철(마르코) 수사	
1	3/13	프란치스칸 영성 (프란치스코의 전기와 글을 중심으로)	최문기 (마티아) 수사	
	3/20			
	3/27			
	4/ 3 (부활 8일 축제)	휴 강		
2	4/10	구원의 역설 (성조 요셉 이야기)	강주현 (사도 요한) 수사	
	4/17			관구 연피정
	4/24			관구 연피정
	5/1 (노동자의 날)	휴 강		
3	5/8	무엇을 위한 권고인가? (복음적 권고의 이해)	김용기 (대건 안드레아)수사	
	5/15			
	5/22 (석가탄신일)	휴 강		
4	5/29	프란치스코와 보나벤투라	한규희 (보나벤투라) 수사	
	6/5			
	6/12			종강미사



기사지 활자체가 커졌습니다

많은 회원께서 건의해주셔서 다음 비교문처럼 활자체를 크게 했습니다.

2017년 12월호 2쪽 활자크기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분의 선하심이 곧베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한국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관구의 동반자이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2018년 1월호 2쪽 활자크기

‘성모기사’를 읽는 모든 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성모님을 닮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미사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부산 기장 성당에서 갖는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시간이 둘째 주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성모기사회 통장 정리를 합니다

관구법인 이름 통장 외 기존 개인이름 통장은 모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이체 회원 중에서 수사님 개인이름 통장(이태영, 박영철, 황광우)으로 보내시는 분들은 다음 계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02-745-613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재) 천주교 끈뽀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농 협 : 317-0007-3146-21

신 한 : 140-012-038430

우 리 : 1005-803-349775

우체국 : 102566-01-005494

하 나 : 274-910011-99204

성소후원회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벼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2-932457

국 민 : 026-01-0344-810

지 로 : 7620247

해외 선교 후원회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실 벼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 140-009-830476

농 협 : 301-0116-9633-21

국 민 : 295401-01-183491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란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코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미사 안내

지 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 구	월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 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장 성당	오후 7:30	둘째 수	051-721-2273
서 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053-636-7427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정당)	042-256-6562
부 산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기장 성당	051-721-2273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 · 안양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4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3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 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지로번호

7529076

● 자동이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 (재) 천주교 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 031601-04-200636

농 협 : 317-0007-3146-21

신 한 : 140-012-038430

우 리 : 1005-803-349775

우체국 : 102566-01-005494

하 나 : 274-910011-99204

● 해외에서 송금할 때

Bank Name(은행명) : Hana Bank

SWIFT CODE : KOEXKRSE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274-910011-99204

Beneficiary(수취인) :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8년 3월 통권 494호

발행인 : 정진철

편집인 : 구원모

편집장 : 윤지영

편집위원 : 이상태, 이유리, 한규희

편집 : 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이신형

인쇄 : 명 조

발행처 : 재단법인 끈뎀두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화 : 02-745-6134 (사무실)

팩스 : 02-745-6135

홈페이지 : ofmconv.or.kr

전자우편 : mikorea@catholic.or.kr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보다 자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으로 자신을 더 높이려 하지 않는
그런 종은 복됩니다.” (루카 17)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